

장성농협 조합장 내년 선거 불출마 선언 놓고 ‘반신반의’

농협 정관 개정 시도 등 행보와 동떨어져 의구심 커져
 “내일 대의원총회에서 유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쇼”

장성농협 박형구 조합장이 내년 3월 8일 예정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내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연임 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제 도입을 위한 농협 정관 개정 시도 등 지금까지 박 조합장이 보여준 행보와는 동떨어진 문자메시지 내용이기에 조합원들의 의구심은 더욱 크다.

더구나 1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의도에 대해 조합원들이 내용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지난 28일 장성농협 조합원들에게 전달된

문자메시지 내용은 <지난 14년간 조합장으로 동거동락하며 쉬없이 달려 온 것 같습니다. 그 시간동안 조합원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년 3월 8일 조합장선거에 저는 조합장이 아닌 평조합원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다.

문자메시지 내용을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조합원 C모씨는 “조합장 불출마 선언인지 아닌지 문구가 애매하다. 지금까지 보면 거짓말을 너무 잘해 믿을 수 없다”며 “정말 불출마 선언이라면 언론사를 불러 놓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며 문자메시지 내용을 평가했다.

이어 조합원 S모씨는 30일 대의원총회에 정관개정 건(비상임조합장제) 의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쇼다”며 “결코 불출마 선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담하듯 말했다. 이어 “오는 30일 정관 개정이 통과 되고 내년 3월 다시 출마하면 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성농협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문자메시지를 발송해놓고 공인된 사람이 출마하면 무슨 창피나 정말 거짓말 하겠다”라고 답변하였고, “지난 11월 23일부터 지금까지 농협 앞에서 모 단체가 집회한 것이 너무 충격 받은 것 같다”며 “정관개정은 조합장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지난번 대의원 회의에서 정관개정 건이 부결되자 박 조합장의 심경에도 변화가 있는 듯 하며 한편으로는 가족들의 적극적인 만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본지는 박형구 조합장의 입장을 직접 듣



기 위해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박 조합장은 28-29일 이틀간 휴가를 내고 핸드폰을 꺼놓은 상태이다.

한편, 비상임조합장제 도입을 위한 장성농협의 정관개정안은 지난 10월 26일 임시대의

원총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정관개정안은 오는 11월 30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게 된다.

김동주본부

‘물 절약 함께해요’ 광주서 양변기 절수용 벽돌 나눔 진풍경

광주 북구 문흥1동 주민자치회 벽돌 1만 장 아파트 11곳에 배부



광주 북구 문흥1동 직원과 통장들이 28일 북구 문흥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주관 물 절약 실천을 위한 양변기 수조 투입 벽돌 나눔 행사에서 지역 아파트 단지 11곳에 운반할 벽돌을 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가뭄 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에서 ‘물 절약 실천’ 확산 차원에서 양변기 수조에 넣을 벽돌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28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 문흥1동 주민자치회는 이날 오전 동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 ‘양변기 수조 투입 벽돌 나눔행사’를 열었다. 올해 내내 이어지는 가뭄으로 식수난 고갈 우려까지 나오는 비상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물 절약 실천을 돕기 위해서다.

주민자치회는 앞서 1장 당 100원 꼴 가격에 벽돌 1만 장을 사들였다. 이날 동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으로 배달된 벽돌은 공동주택 단지 11곳(아파트) 입주민 수에 따라 재분류돼 보내졌다. 각 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필요한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벽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주민자치회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 4882가구가 양변기 수조에 넣을 벽돌을 널리 이용하도록 단지 내 방송,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펼친다.

실제 가정용 변기에서 1회 사용하는 물의 양은 6~10L다. 양변기 물통에 벽돌 혹은 물을 담은 페트(PET)병 등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넣어두면 20~30%의 절수 효과가 있다. 수압 밸브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문흥 1동 관계자는 “주민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실질적인 물 절약 효과가 있는 지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며 “가뭄 위기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화물 총파업’ 광주·전남 물류대란 파장 확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7주째인 28일 광주·전남 산업계 곳곳으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물동량을 봉쇄하고 나선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 2곳의 반출입 물동량은 사실상 0을 기록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오전 0시 이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군남 긴급물류 1TEU(20피트 규격 컨테이너 1대분)에 불과하다. 목포항도 일일 컨테이너 평균 반출입량인 211.6TEU를 크게 밑돌고 있다. 전남 하루 통틀어 컨테이너 26TEU만 오고 갔다. 장지울은 평소 수준인 5.5%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광양항의 경우, 파업이 장기화해 장지울 80% 이상에 이르면 물류 적체 현상이 본격화된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은 파업 끝기 이틀 남긴 지난 25일 오전부터 26일까지 출고 완성차 3500여 대를 순차적으로 평동·전남 장성 출하장으로 개별 운송했다.

우선 협력업체 직원과 급히 고용한 운전원 70여 명이 이른바 ‘로드 택송’에 투입됐다. 하

루 평균 생산량인 2000여 대에 맞춰 매일 출하장으로 타송할 계획이다.

내수용 신차는 임시 반호관을, 수출 완성차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고 도로 위를 달린다.

지역 건설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전국 각지의 시멘트·레미콘 공장의 생산량도 급감하고 있다. 현재 평시 대비 전국 생산량은 시멘트는 5%, 레미콘은 30% 가량이 불과하다.

시멘트 생산업체 대부분은 육로 운송으로 공급량을 조달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레미콘 역시 이르러 29일부터 생산·공급이 멈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처럼 주요 건축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건설 현장도 ‘춥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업에 대비해 각 건설사가 미리 확보·비축한 자재 물량에 따라 상황은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 현장이 일주일의 버티지 못하고 ‘공사 중단’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승호기자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